

우리가 보고 있기에

전염병은 여러 면에서 교회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확장하여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돌보아 왔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자신의 공동체에서, 또 전 세계에서 특별헌금과 선교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과 함께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이용하는 방식들은 바뀌어도 추구하는 바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온라인, 주차장, 소셜미디어, 전화 등 이전과 다른 방식에서 삶과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턱을 넘어, 모든 건물 밖에 존재해 왔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만,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그 유대관계를 그리워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사야 5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불평등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하고, 배고픈 자들을 우리의 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목마른 자들, 갇힌 자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주를 뵈었나이까?"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어려울 때, 연약할 때입니까? 배고플 때, 목 마를 때입니까?

전염병이 없을 때도, 교회는 모든 시대와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구세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돕는 것만이 교회가 여기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기아, 억압, 목마름, 투옥, 질병을 겪는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 또한 **함께** 교회가 되어가고 교회를 경험하며 교회를 만들어가고 교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은 우리 장로교인들이 선교와 사역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과 함께하게 하는 가장 광범위한 방법입니다. 이 헌금을 통해 우리는 태풍과 자연 재해의 공포로 고통받는 이들과 COVID-19로 인해 미래와 삶을 잃고 그 결과 전체 문화가 위협받는 사람들과 교회가 함께 함을 선포합니다. 우물이 없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물을 확보하려는 정치권의 의지가 없어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없어서 목마른 자들과 교회는 함께 합니다. 교회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항상 그리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명, 즉 교회의 **존재 의미** 를 위해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헌금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교단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계속해서 되게 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비록 작지만, 이것이 모이면 참 많아집니다.

***기도합시다~***

*"구세주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지 마소서. 대신에 당신이 불의를 겪는 이, 굶주린 이, 목마른 이, 어려움을 겪는 이와 함께 하시는 그 곳에 우리가 가게 하소서. 아멘."*